

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전북도청  
공보관 (T.063-280-2032, 2193 /F. 280-2299)  
<http://www.jeonbuk.go.kr>

보도시점 : 2017년 6월 8일(목)부터

• 담당부서 : 자연생태과

• 담당자 및 연락처

- 자연생태과 과장 정토진(280-4170)  
생태관광팀장 양연숙(280-4176)

## 전라북도 생태관광 성공가능성을 보여준다

- ▶ 8개 시군 부스에 3,000여명 이상 참여, 조기마감 등 큰 호응!
- ▶ 국내외 전문가와 함께 생태관광에 대한 열정의 토론 시간 가져
- ▶ 가족과 함께 생태관광지 현장에서 오감만족 생생체험 즐겨

### □ 시군별 특색을 살린 생태관광 홍보·체험부스 큰 호응

- 도는 지난 2일부터 3일까지 열린 제10회 그린웨이 환경축제에서 '생태관광 1번지 전라북도'를 널리 알리기 위한 다양한 행사가 열렸다.
- 메인 행사장에서는 시군별 생태관광지의 특성을 살린 8개의 체험부스가 펼쳐져 양일간 어린이들부터 어른까지 3,000여명이 넘게 참여해 큰 인기를 끌었다.
- 도의 생태관광지를 알리는 홍보부스를 시작으로 지역주민들이 직접 손수 그린 생태마을 지도 전시회가 열려 지나가는 이들의 발길을 사로잡았다.

- 정읍시에서는 친환경에너지 수단인 자가발전 자전거의 전시행사와 함께 내장산 생태관광지 내에 서식하는 다양한 동식물을 부채에 그리는 체험행사에 300여명이 참여했으며,
- 남원시에서는 백두대간 생태교육장에서 직접 만나 볼 수 있는 물방개, 장수풍뎅이, 애벌레 등 살아있는 곤충체험과 더불어, 생태교육 O,X퀴즈, 물방개 레이스와 곤충집 만들기, 표본만들기 등 300여명이 체험행사에 참여했다.
- 순창군에서는 단순히 집에서 버려지던 폐와인병을 활용해 집안의 분위기를 산뜻하게 바꿔줄 캔들로 만드는 체험에 100여명이 넘게 참여했으며,
- 고창군에서는 애벌레 모양을 귀엽게 캐릭터화한 라바와 미니언즈 머피핀 만들기 체험에, 300여명이 넘게 참여했다.
- 임실에서는 태조 이성계가 조선건국의 기운을 받아 소원이 이뤄진다는 상이암을 모티브로 나무에 직접 소원을 써서 소원판에 거는 체험행사에 400여명이 넘는 인원이 몰려 제일 먼저 체험행사가 마감됐으며,
- 완주군에서는 지역에서 다양하게 자라고 있는 야생화와 풀들을 소재로 아기자기하게 꾸미는 꽃다발을 만들어 300여명이 넘게 참여했다.
- 장수군에서도 금강의 발원지인 뜯봉샘의 깃대종을 형상화한 탁본 손수건 만들기 행사를 진행하며 400여명이 넘는 참가자들이 나만의 손수건을 만들어 가는 시간을 가졌다.
- 특히, 홍보부스 내에 장수와 완주에서는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오미자 슬러시와 개복숭아 효소 음료를 2,000잔이 넘게 판매하며 작지만 지역주민의 소득과 함께하는 생태관광의 성공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다.

## □ 지속가능한 관광, 생태관광의 발전 방향 모색의 장 가져

- '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전북 생태관광'을 주제로 2일(금) 도청 2층 공연장 세미나실에서는 국내외를 대표하는 전문가들과 함께하는 포럼이 열렸다.
- 서울대학교 강미희 교수의 생태관광지역의 국내외 시설 사례를 시작으로, 신정섭 생태문화연구소 소장의 생태자원 프로그램 개발 및 흥경한 미술평론가의 생태관광과 문화예술의 만남, 거위의 꿈 이준경 대표의 여행복지, 카트린아멜 대표의 생태관광의 국내외 마케팅 사례까지 폭넓은 주제로 다양한 발표가 이뤄졌다.
- 앞으로의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인 생태관광에 대한 눈높이 강연에 이어 참가자들의 열띤 질문과 토론이 시간이 이어졌다.
  - 고령화되고 있는 지역주민과 생태관광의 주요 타겟층인 젊은 세대와의 공감대 형성을 비롯해, 동물복지와 생태관광의 식음서비스, 문화예술과의 접목 등 다양한 분야의 질문과 전문가들의 답변의 시간을 가졌다.
- 당초 계획된 시간을 훌쩍 넘어서까지 이어진 대화의 장을 통해 평소 생태관광에 대한 궁금증 해소와 더불어 깊은 이해와 관심을 가질 수 있었으며,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 공감대까지 형성하며 아쉽지만 다음 만남을 기약했다.

## □ 마을해설사와 함께하는 현장투어로 생태관광의 진면목을 만끽하다.

- 3일(토)에는 참가자 40여명과 함께 고창, 완주 생태관광지를 직접 방문해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해설사 양성교육을 수료한 해설사와 함께 생태관광지 구석구석을 느끼는 시간을 가졌다.
- 고창 운곡람사르습지에서는 습지 탐방과 고인돌 유적지까지 어우러져 문화적 요소와 생태적인 요소를 한꺼번에 즐길 수 있었다.
  - 특히, 마을 주민들이 직접 운영하는 생태밥상은 참가자들에게 가장 큰 만족도를 선사해 앞으로 메뉴개발 등 방문객 유치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됐다.
  - 다만, 1시간 40분정도 이뤄진 탐방시간이 아쉽다는 참여자들의 의견이 많아 다양한 탐방객 수요에 맞는 코스 개발 등에 대한 지속적인 고민이 숙제로 남았다.
- 완주 싱그랭이 마을투어에서는 해설사와 함께 참여자들이 직접 질문하고, 만져보고, 체험하는 다양한 시간이 마련됐다.
  - 화암사까지 올라가는 길에 울창하게 우거진 숲 사이로 자라는 각종 나무, 야생화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함께 주변에 그냥 스쳐지나갈 수 있는 작은 풀들에 대한 스토리까지 이어져 소소한 재미를 더했다.
  - 마을에서 직접 진행하는 두부체험 등까지 원하는 참가자들이 많았으나, 행사 일정 시간이 촉박해 더 많은 투어를 즐기지 못해 아쉬움을 달래야했다.
- 현장투어에 함께한 참가자들은 다음기회가 되면 다른 지역에도 꼭 가보고 싶다며 생태관광의 매력을 한껏 느끼고 돌아갔다.

## □ 생태관광 자원조사, 주민역량교육 등 지속적 피드백 체계구축

○ 도는 이번 축제 참여를 시작으로 **전라북도의 생태관광 정책을 전국적으로 알리고, 보다 많은 관광객이 찾는 전라북도를 만들어 나간다는 방침이다.**

- 생태관광 마을해설사를 중심으로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생태자원 및 마을자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생태관광에 대한 이해와 방문객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펼칠 계획이다.

- 뿐만 아니라, 주민스스로 생태자원을 보전·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주민교육과 더불어 최대한 인위성을 배제하고 있는 그대로의 자연속에서 느낄 수 있는 생태관광을 위해 프로그램 개발 등에도 힘쓴다는 방침이다.

□ **전라북도 관계자는,**

**“앞으로도 시군별 차별화된 생태관광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역별 특색있는 아이템 발굴 및 업무공유를 통한 지속적인 피드백 체계를 구축할 것이며,**

**누구나 쉽게 찾고 즐길 수 있는 생태관광지 육성을 위해 안내판 정비 등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” 고 밝혔다**